

8·15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受容史

제20회 한일문화강좌서 在日평론가 안우식씨 발표

최근 몇년 사이 우리 문학의 번역 소개 작업이 점차 활기를 띠게 되면서 세계문학에서의 한국문학의 위상과 한국문학의 세계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몇몇의 특출한 예외를 제외하면, 문학에 관한 언저나 수용자의 입장에 머물러 온 게 사실인 우리로서는 대단한 변화가 아닐 수 없는데, 그만큼 우리 문학도 세계문학과 당당히 어깨를 견줄만한 수준에 다달아 있다는 한 증거가 된다. 물론 보다 본질적으로는, 우리 문학이 어느날 갑자기 비약적인 발전을 보여서라기보다는 국력의 신장에 따라 문학도 이제서 겨우 정당한 대접을 받게 된 측면이 크겠지만, 어쨌든 바람직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8·15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의 발자취'라는 주제로 개최됐던 韓日文化交流基金의 제20회 한일문화강좌는 그런 점에서 큰 주목을 끌었다. 제일교포 번역가 안우식씨가 발표를 맡고 문학평론가 김炳翼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강좌는 일본문단에서 활약하고 있는 발표자 안씨의 구체적인 현장경험과 다양한 사례들이 제시돼 참석자들의 활발한 질의 토론을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다음에 안씨의 발표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한국문학을 보는 일본인들의 인식변화

90년대에 접어들면서 세계 여러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한국문학에 대한 인식은 과거에 그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새로워지고 있다. 다음의 몇가지 사례는 그같은 사정을 잘 확인시켜 준다.

첫째, 일본문예지로는 가장 역사가 오래며 질적으로도 으뜸간다고 할 수 있는 월간지 「新潮」가 '20세기의 세계문학'이란 이름으로 1991년 4월에 간행한 임시증간호에 윤홍길의 단편 「羊」이 수록되었다.

둘째, 문예물로서 일본을 대표하는 출판사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集英社가 1991년 6월말 완간한 「集英社갤러리-세계의 문학」 전 20권 중 '중국·아시아·아프리카' 편에 일곱편 약 6백매의 '조선단편집'이 수록되었다.

셋째, 「集英社갤러리-세계의 문학」과 함께 集英社가 창업 65돌을 기념하는 사업으로 10억엔의 예산을 들여 1985년 편집에 착수, 1993년에 출판할 예정으로 있는 「세계문학대사전」(전7권)의 편집위원 12명 가운데 외국

인으로는 유일하게 안우식이 들어있으며, 한국문학 관계항목들로 고전문학에서 현대문학에 이르는 인명항에 2백여명, 사항에 50여항이 수록되었다.

이상의 몇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것은, 세계 어느나라 문학과 비교해도 그 질과 수준에 있어서 한국문학이 앞서면 앞섰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본의 문예관계자나 출판계에서 인식하게 된 결과가 아닐 수 없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한국문학은 일본에서도 세계의 앞선 문학의 하나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이러한 해석이 결코 우리만의 자기만족이 아님을 반증해주는 사례 또한 적지 않다.

가령, 「新潮」 1991년 4월호에 게재된 한국의 젊은 작가 장정일의 중편소설 「아담이 눈 뜰 때」에 대한 매스컴의 반응이 그 좋은 예가 된다. 일본의 신문들은 월말이면 문예시평란을 통해 그달의 문예지에 실린 작품들을 비평의 도마 위에 올리는데, 단 번역소설이나 시에 대한 평은 삼가는 것이 통례로 돼 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讀賣新聞은 10월25일자 석간에, 東京新聞은 10월29일자 석간에 각각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 작품을 화제로 삼고 있다. 이는 윤홍길의 「장마」가 일본에 소개됐을 당시 讀賣新聞 1979년 5월의 문예시평란에 이 작품을 위해 많은 지면을 할애한 이후 12년만의 일이다.

이와함께 朝日新聞이 일본에서 '문화의 날'로 제정돼 있는 11월3일자 사설 첫머리에 이 작품을 소개한 것은 여러모로 뜻깊다. 그것은 朝日新聞이 사실에서는 제나라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언급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서만은 아니다. 패전 후에 문화의 날로 이름이 바뀌기는 했으나 11월3일은 바로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병탄한 당사자인 明治천황의 생일로, 8·15이전까지만 해도 '明治節'이라고 일컬어져 '明治천황의 위업'을 기리는 축제일로 정해져왔기 때문이다.

이바라기 노리코의 편역으로 1990년 11월에 출판된 「한국현대시선」이 1991년 2월 讀賣新聞社 제정 讀賣文學賞 연구·번역부문상을 수상한 사실도 한국문학에 대한 일본문단의 평가를 잘 대변해준다. 훌륭한 번역은 훌륭한 원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에는 오늘의 한국시단을 대표하는 시인들 12명의 작품 62편을 번역해서 실었는데, 편역자의 전언에 의하면 심사위원들이 수록된 시들의 높은 수

이제 '좋은 작품' 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일본문학이나 다른 세계문학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됐다.

일본문단이나 출판사 편집자들은

그들의 문학에는 걸림돼 있는 새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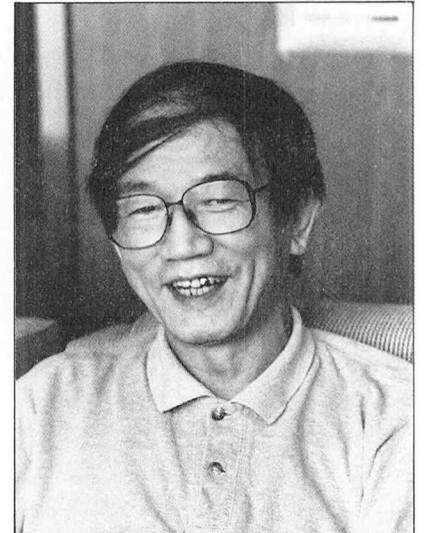
가능성의 출구를 한국문학을 통해

모색하고 있다. 일본의 독서시장에서

한국문학은, 중남미문학과 더불어

다른 나라 것으로는 가장 높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안우식씨.

준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또 심사평을 보더라도, 현재 일본시단을 대표하는 大岡信, 谷川俊太郎 등이 황동규, 오규원들의 시작품에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이 언급돼 있다.

70년대만 해도 북한문학이 더 많이 소개돼

오늘의 일본에서 한국문학이 세계문학의 하나로 자리를 다지며 일본인들에게 충격적으로 수용되기까지에는 오랜 세월과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했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의 변화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 6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일본출판계에는 '한국'이고 '조선' 이고간에 출판물에 한해서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인식이 있었다. 도자기를 빼놓고는,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은 식민지시대와 같은 수준이었다. 식민지시대의 한국문학은 한국문학으로서가 아니라 일본문학의 한 변방문학으로 치부됐을 뿐이다.

따라서, 일본에서 한국문학을 번역 소개하는 일도 그 출발부터 이미 정상적일 수 없었다. 8·15이후 1970년까지 일본에서 소개된 우리나라 문학작품(소설)의 목록들을 일별해보면 그같은 사정이 쉽게 짐작된다. 이 18년 동안 일본에서 번역 소개된 한국소설은 모두 127편에 이르는데 중복번역된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대략 110편 안팎이다. 이만큼이라도 번역된 것이 다행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결코 그렇지 못했던 것이, 그것들이 한국문학에 대한 일본문단이나 출판계의 인식을 바꾸

는데 거의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이 당시 한국문학을 게재한 紙誌들의 성격에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는데, 조총련계 제일교포 단체의 소책자형 기관지나 협회지가 대부분이어서 일본인 독자들에게까지 전달되기에는 어려웠다.

같은 기간에 일반단행본이나 잡지 등 일본의 상업출판물을 통해 소개된 작품이 고작 10편밖에 안된다는 사실도 그것을 잘 설명해준다. 김광식의 「23호 주택」 추식의 「인간제대」(이상 文理書院 刊 남북단편집 「세 청년」에 수록) 김동리의 「밀다윈시대」(大學書林 刊 「조선어 4주간」 수록) 선우희의 「유서」(岩波書店 刊 「世界」지 수록) 박연희의 「증인」 남정현의 「분지」 오유권의 「가난한 형제」 김송의 「세월」 김초의 「윤간」(이상 新興書房 刊 현대남조선소설집 「세월」 수록) 유주현의 「조선총독부」(講談社 刊) 임수일의 「백의의 수기」 최서해의 「탈출기」(이상 學藝書林 刊 「문학의 발견」 총서 중 「아세아의 눈뜸」 편 수록) 등이 그것인데, 이는 비슷한 기간에 장, 단편을 합해 37편이나 상업출판물을 통해 번역 소개된 북한소설의 경우와 좋은 비교가 된다. 번역의 질이나 수준은 차치하고서라도 양적으로 매우 적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던 것이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주로 조총련계를 중심으로 한 재일한국인 사회 안에서만 통용되던 종전과는 달리, 한국문학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식이 새롭게 전환되는데, 그 전환의 계기를 이룬 여건들을 꼽자면 이렇다. 첫째, 일본인들이 중심이 된 '朝鮮文學의 會'

가 발족하고 소책자 「조선문학, 소개와 연구」가 창간되면서 한국문학이 일본인 연구자들의 본격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둘째, 북한에서 김정일 세습체제 구축의 조짐이 노골화됨에 따라 조총련에서 지식인들이 대량으로 탈퇴하고 그들이 주축이 되어 개간지 「삼천리」를 창간하면서 한국문학으로의 관심의 지평확대가 이루어졌다. 셋째, 김지하의 「五賊」 필화사건으로 일본지식인들의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게 되었고, 넷째는 월남전의 종결로 출구를 잃은 일본지식인들의 에너지가 한국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며 번역출판된 한국소설의 목록을 보면, 가령 조선문학의 회 편역으로 1973년 創土社에서 출판된 「현대조선문학선1」의 경우, 분지(남정현) 사회봉(남정현) 恨水傳(윤정규) 실증(송병수) 목시(선우휘) 죽제비(하근찬) 청산택(조정래) 俗綠(최해군) 마루열전(서기원) 어떤 파리(박순녀) 총독의 소리(최인훈) 등이 수록돼 있다. 같은 해 冬樹社에서 출판된 「현대한국문학선집3」에는 젊은 느티나무(강신재) 늪(김동리) 무진기행(김승옥) 채취(박영준) 암사지도(서기원) 후송(서정인) 테러리스트(선우휘) 잉여인간(손창섭) 소리 킴(송병수) 제3인간행(안수길) 갯마을(오영수) 오발탄(이범선) 닳아지는 살들(이호철) 요한시집(장용학) 꺼삐딴 리(전광용) 포대령(천승세) 감정이 있는 심연(한무숙) 학(황순원) 등의 작품이 실려 있는데, 비슷한 성격의 단편집으로 앞의 「현대조선문학선」 제2권(1974)과 「현대한국문학선집」 제4권(1974)을 비롯해 同成社의 「현대한국소설선 1,2」 등이 더 있다.

장편소설로는 최인훈의 「광장」과 황순원의 「일월」을 한데 묶은 「현대한국문학선집1」(1973)을 비롯해 최인훈의 「바보들의 행진」(國書刊行會, 1977)이 출판됐고, 역시 최인훈의 「광장」과 이청준의 「씨어지지 않는 자서전」이 각각 「한국문학명작선」(泰流社) 제1권과 2권으로 1977년 선을 보였다.

윤홍길의 「장마」가 분수령 이후

그러나 이 시기의 한국문학은 일본에서 아직 「문학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 작품 자체로서보다는 작품 이외의 요소, 그중에서도 특히 정치적인 측면에서 작품이 제한적으로 소개되는 경향이 짙



지난 1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20회 한일문화강좌.

었다. 말하자면, 이 시기의 한국문학은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치적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번역의 질에 있어서도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적지 않게 남아 있었다.

1979년 東京新聞 출판국에서 발행한 윤홍길의 「장마」는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受容史上 가장 인상적인 전기를 마련한다. 이 단편집의 출판에 이르러 비로소 한국문학은 일본에서도 확실한 문학적 시민권을 얻게 된다. 이제 한국문학은 더 이상 한국에 대한 정치적 관심의 연장선 위에 있지 않게 된다. 작품 자체의 질과 힘에 의해 번역과 평가가 이루어짐으로써 일본문학이나 다른 세계문학이 보여주지 못한 새로운 문학의 세계로 일본인 독자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충격을 주게 됐다는 것이다. 이 전환의 시기에 출판된 한국문학 작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79년: 장마(윤홍길, 동경신문출판국) - 장마, 양, 아홉결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직선과 곡선, 창백한 중년, 날개 또는 수갑 등 수록: 황혼의 집(윤홍길, 동경신문출판국) - 황혼의 집, 기억 속의 들꽃, 무지개는 언제 뜨는가, 궁상반생 등 수록

1981년: 상록수(심훈, 龍溪書舍) : 한국현대문학13인집(新潮社) - 背面(선우휘) 바다(최정희) 서울 1964년 겨울(김승옥) 海神(한승원) 무제(윤홍길) 도둑맞은 가난(박완서) 등신불(김동리) 강(서정인) 물개월의 새(황석영) 등 수록

1982년: 에미(윤홍길, 新潮社)

1983년: 토지 제1부 전8권(박경리, 福武書店)

1984년: 조선단편소설선(岩波文庫) 상편 - 감자(김동인) 운수 좋은 날(현진건) 뽕(나도향) 民村(이기영) 백금(최서해) 낙동강(조명희) 한귀(박화성) 지하촌(강경애) 김강사와 T교수(유진오) : 하편 - 메뚜기 필 무렵(이호석) 동백꽃, 봄봄(김유정) 날개(이상) 소년행(김남천) 오월의 훈풍(박태원) 창랑정기(유진오) 이령(한설야) 유치장에서 만난 사나이(김사랑) 사냥(이태준) 무녀도(김동리) 습작실에서(허준)

1985년: 현대한국단편소설(新潮社) - 단독강화(선우휘) 꿈꾸는 자의 나성(윤홍길) 어둠의 혼(김원일) 고려장(전상국) 乾(김승옥) 낙타누갈(황석영) 뒹(박범신)

1986년: 객지(황석영, 岩波書店) - 객지, 한씨연대기, 삼포 가는 길, 假花

1988년: 한국단편소설선(岩波書店) - 흥남철수(김동리) 곡예사(황순원) 生活的(손창섭) 닳아지는 살들(이호철) 삼각의 집(하근찬) 무진기행(김승옥) 假睡(이청준) 정든 땅 언덕 위(박태순) 분지(남정현) 변명(이병주) 가족(최인훈) 가객(황석영) 징소리(문순태) 압살(김원일)

1989년: 낮(윤홍길, 角川書店) : 틀(박범신, 角川書店) : 닭(한승원, 角川書店) : 무기의 그늘(황석영, 岩波書店)

1990년: 조선환상소설결작집(白水社) - 금수회의록(안국선) 용과 용의 대격전(신채호) 기아와 살륙(최서해) 고향(현진건) 쥐 이

야기(이기영) 지주회시(이상) 미친 새(박양호) 침묵의 눈(전상국) 꿈길과 말길(최일남) 1992년: 아로운(한운사, 角川書店) : 아담이 눈뜰 때(장정일, 新潮社)

‘좋은 작품’이면 얼마든지 경쟁할 수 있다

80년대 이후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소개에도 물론 문제는 남아 있다. 매끄럽지 못한 번역과 오역이 여전히 눈에 띄고 작품의 선정도 그렇게 체계적이지 못한 편이다. 그러나, 이제 ‘좋은 작품’이기에 얼마든지 일본문학이나 다른 세계문학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 있다. 요즘 일본의 젊은 독자들은 한국문학에 대해 아무런 알레르기나 콤플렉스도 없다고 스스로없이 말하고 있으며, 우리문학을 알기 위해 우리말을 배우는 일본인들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일본문단이나 출판사 편집자들 또한 최근의 일본문학에서 독자들을 긴장시키고 충격을 가하는 활력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한국문학을 통해 그 돌파구 모색의 가능성을 찾고 있다. 일본의 독서시장에서 이제 한국문학은, 중남미문학과 함께 다른 나라 문학으로는 가장 높은 관심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문제는, 이렇게 조성된 여건들을 보다 튼튼히 다지고 보다 폭넓게 확산시키는 일이 된다. 특히, 여러 작가들의 여러 문학적 동향들을 다양하고 충실하게 소개할 수 있는 번역인력의 육성과 그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은 한국이라는 한 나라 전체와 일본이라는 한 나라 전체가 만나는 단순한 國際관계에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구체적인 한국인과 구체적인 일본인이 서로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는 ‘人際관계’가 형성될 때, 정치나 역사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깔려있음이나 문화의 영역에서만 큼은 극복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일본에서의 한국문학 수용의 참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